

결실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회개는 영혼이라는 발을
경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개끗할 때에
하나님의 씨앗은 더 잘 자랍니다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October 2,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마가복음 5:21-43 믿음의 upgrade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542장 - 어려운 일 당할 때 (결단의 기도) <small>(통일찬송가 342장)</small>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유덕하 집사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small>(통일찬송가 348장)</small>
삶과 세상으로	* 찬 송 /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후서 3:1-5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 “결실의 달”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라.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만남과 나눔의 주간**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 PCoP 사역 협력 교회 건물 미화(페인트 작업)**이 금주 중에 있습니다.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정기 제직회** 사역 보고 준비해 주십시오. 10/30 (주일) 오전 11:00
- 찬양집회/찬양사역 세미나**를 10/21(금)부터 10/23(주)에 가집니다. (강사: 허성근 목사 / 허지윤 사모)
- 기도** 가정과 성도를 위해, 전도를 위해 힘써 기도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 - (1) 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2) 주일 오후 8시-9시 30분
(3) 화요일 오전 10시-11시
말씀 공부를 통한 영성과 열정을 회복합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10월의 사역 - 만남/나눔 주간(2-8) 성장/성숙 주간(9-15) 하이킹(16)
소금/빛 된 주간(17-22) 찬양집회/찬양사역 세미나(21-23)
선교 주간(23-29) 선교주일(30) 제직회(30)

▶ 교우동정 - 박진성 집사 / 뉴올리언즈 형제 사업체 방문 중 (10/1-10/3)

기도제목

1. 여름방학을 마친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2.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3.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4.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5.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9/25	10/2	10/9	10/16
	구은강집사	구민집사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9/25	10/2	10/9	10/16
	유덕하집사/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소원대로 되지 않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 / 마가복음 5:1-20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군대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 것을 간청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으로 돼지 떼에게로 옮겨가게 됐고 돼지는 몰살했다.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가볼리 지방을 떠나도록 요청했을 때, 정상인으로 회복된 그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지 않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은혜를 전하라고 하셨다. 그는 거라사 뿐 아니라 데가볼리 전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실 때가 있다.** 이 경우 분명한 이유가 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더 좋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인내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온전히 기뻐하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믿음의 업그레이드 / 마가복음 5:21-43

아이로는 누구인가? 그의 필요는 무엇이었나?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아이로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아이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믿음의 업그레이드 / 마가복음 5:21-43

회당장 아이로에게는 중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딸이 있었다. 말씀만으로 소녀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신 예수님에게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안찰하셔서 살려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아이로가 가진 믿음의 한계였다.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 수 없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꾸짖지 않으시고, 모두의 믿음을 세워주신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간구대로 그의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 왜 이렇게 믿음이 얇은지 책망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짧은 시간에 아이로의 딸은 죽게 된다.

이때, 예수님은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경험과 환경, 인본주의적인 믿음, 즉 어린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아이로가 스스로 계획하고 요구하는 그런 믿음대신에, **방법과 시간 모두를 예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뜻한다. 이것이 현재 가진 낮은 믿음을 훌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그 순간 아이는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이로는 드디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그의 믿음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성장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선생님이 계시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했다.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믿음의 학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관하여 꾸준히 배운다. 때로는 시험도 치른다. 이 믿음의 학교에서 나의 믿음을 얼마만큼 성장했고,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두렵다면?

아담과 하와는 결국 마귀가 하는 말대로 했다가 에덴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 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귀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셔.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시는 것만 많고, 재미있는 일, 욕심나는 일은 다 하지 말라고 하셔.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라고 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목자처럼 여겨지나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 씌대로 산다는 건 어렵고 얽매여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마귀에게 반 이상 마음을 빼앗긴 것 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봐!
본능에 충실해. 재미있게 살아! 마음껏 즐겨!'

그 속삭임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싶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는 것은 두렵고, 마귀가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는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목자 삼지 못하는 것 입니다.

한번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불안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 앞에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을 따라가면 정말 푸른 풀밭과 물가가 나오나요?”

세상은 갈 데도 많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목자만 따라 살아야 하는지 갈등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입니다.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사 53:6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인지 모르는 것 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여호수아 24:15

왜 불안할까요?

왜 주님이 친밀하게 인도하시는 경험이 없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는 것 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목자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것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임을 믿으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양이 할 일은 언제나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은 “내가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 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 납니다.

유기성,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내가 양을 인도하리니 너희는 내 목자라.”

잠언 3:5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